



한우협회 전북지회, '엄마의 밥상'에 한우 전달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섭)가 아침밥을 굽는 전주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침 도시락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2일 전주시에 밥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전달 받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한우고기 약 536kg(190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

이번 한우고기 후원은 전북도지회가 '한우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한우인들이 스스로 정제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11월 1일)'을 기념해 마련했다.

이에 앞서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실시할만 모듬해 '복합유공자 가족과 밥 굽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윤섭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회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즈음하여 한우농가와 전후방업체들이 실시할만 자발적인 모듬을 통해 전주시 밥 굽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에 나눔을 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들을 위해 후원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장수사과 품평회, 김정섭 농가 대상 영예

제16회 한우랑사과랑 축제, 8농가 시상

장수군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에서 최고품질의 장수사과를 선발하는 사과품평회를 진행해 총 8명의 농가를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100여 농가가 참여한 이번 사과 품평회는 현지심사와 당도 심사를 거쳐 통과한 20품에 대해 사과연구소 양상진 박사 등 내외부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총 8명의 시상자를 선발했다.



(장수읍) 농가 선정돼, 장수사과원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장수읍 김정섭 농가는 "올해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여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타지역에 비해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해 축제 기간 많은 관람객에게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매년 사과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예수병원, '영리더 캠프' 간호사 수련회 개최

예수병원 간호국(합선희 간호국장)은 병원의 역사와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영리더 캠프' 간호사 수련회를 2일 개최했다.

예수병원 간호사들이 참여한 영리더캠프(YLC)는 개회예배, 예수병원 발자취, 선배들의 경험과 성장을 나누는 패널토의, 김명애 교수의 주제 강연(나의 꿈, 나의 비전), 레크리에이션과 두들 교제,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신중식 병원장은 "앞으로 예수병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선교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독간호사로서 임상현장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영리더 캠프'는 예수병원 간호국 국제의료협력단, 원목실 주관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증인 됨을 목적으로 예수병원의 설립목적에 합당하며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격려하고 기복고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임직 3년 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한우협 순창지부·순정축협, 한우 불고기 전달

전국한우협회 순창군지부(대표 김영우)와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은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여 2일 순창군에 24kg 약 895만 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 순창군지부는 2020년 92kg, 2021년 53kg 등 매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한우를 기탁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오랫동안 이어진 전국한우협회 순창군지부의 이웃사랑 실천은 관내 소외계층에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동질기를 앞두고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한우는 관내 저소득층 246가구에 1kg씩 배분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일자리 기관·업체 업무협약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지양근)는 지역내 산업별 인력·훈련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과의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와 협력 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2개 기관과 찾아가는 업무 협약식을 2일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남원YWCA를 비롯하여 11개 기관이 참여해 기업체 대표와 새로일하기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사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가 기관 간의 정보 교류 시간과 2022년도 새일센터 사업성과 및 2023년도 직업교육 훈련 과정 수요조사, 협약서 서명, 상호 교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원YWCA 유정이 회장은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사후관리 사업 등을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고 격려했다.

이외 지양근 센터장(교육체육과장)은 "여성의 취업 연계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펼쳐서 여성 경제활동을 돕는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펼쳐서 여성 경제활동을 돕는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송신협, 취약계층 상품 전달·세무상담 제공

농송신협(이사장 임영민)은 지난달 27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청소년 보호시설인 (사)양지뜸 천사의 집을 방문해 온열매트와 신협아쿠바박스 등 이웃돕기 상품을 전달했다.

임영민 농송신협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송신협은 지난 8월, 세무사 상담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이들이 불편하진 고려자 및 자영업자 조합원들의 세무상담을 지원하고자 임우성 세무사(성지세무회계법인)를 고문세무사로 위촉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점에서 상담 예약을 통해 임우성 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정한 지역 내 서민금융으로서 한 걸음 더 도와주기 위하여 세무상담과 농송신협 전문AI(번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도 시행 검토 중이다.

농송신협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산 1,213억원, 조합원 8,705명의 건실한 지역 금융기관이다. 지난 4월에는 본점을 신축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2 새만금 영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을 주제로 진행한 2022 새만금 영상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8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지난 7월 18일~10월 7일)에는 총 42편의 영상물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심사단이 '홍보성, 창의성, 기획성, 완성도, 성실성' 등을 평가한 점수(50%)와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50%)를 합산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8개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엄마와 딸이 새만금을 여행하며 다양한 새만금의 매력을 브이로그(V-Log; 영상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꿈의 도시 새만금(이혜민)'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새만금이 가진 역사적, 지리적 의미를 전통적인 춤사위와 노래로 표현한 '뷰티풀 워(A Beautiful War, 박운영)'가, 우수상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찬 새만금 인근 관광지를 소개한 '새만금 여행코스 총정리(김영민)'가 선정됐다. /김영태 기자

시상식은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대상(1편)에는 상금 500만 원과 새만금개발청장상이, 최우수상(1편)에는 300만 원, 우수상(1편)에는 100만 원, 장려상(5편)에는 각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박기선 심사위원장은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의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새만금이 가진 잠재력과 모두가 꿈꾸는 미래 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한상환 대변인은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작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 새만금 영상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새만금개발청 유튜브(youtube/kasdl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여경협 전북, 소외계층에 물품·후원금 기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 이하 여경협)는 전주시북지재단 '전주사랑'을 통해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호성보육원에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을 2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팔복동 소재 호성보육원에서 아동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진행됐으며, 여경협 박숙영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여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여경협 박숙영 회장은 "도내 미래 여성기업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북지회(회장 박숙영)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지난 10월 20일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10월 31일 전라북도내 사회적 보호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220여개의 여성기업이 함께 모여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모인 경제단체로 역량과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경영 흐름에 발맞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꾸준한 사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예정

남원시는 2022년 청소 시기가 도래한 가정 정화조 등에 대해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수질오염 방지 장치로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하수도매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적정시기에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는 적정 시기에 청소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분뇨 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된다.

현재 남원시에 등록돼 있는 정화조 소유자는 약 5,300명으로 시는 하수도매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정화조 소유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추진하여 범도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불조심 강조의 달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인명피해·현수막·배너·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대도민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화재취약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교육 △군민들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농협-태인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 대상자 지원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과 태인농협(조합장 한상곤)은 2일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 거주하는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서 사용하지 못하는 싱크대를 교체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불복대상자 어르신이 '농업인행복콜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어려움을 겪는 NH농협은행(정읍지점)은 실사를 거쳐, 농협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고통을 해결해드렸다.

지원을 받게 된 어르신은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여러차례 밝혔다.

태인농협 한상곤 조합장은 "관내에는 어려운 이웃에 농업에서 더 많이 행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청하면 새마을부녀회, 화장지·고추장 나눔

김제시 청하면(면장 정수년)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지)는 2일, 화장지 60개와 김제시 새마을연합회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 40봉을 관내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화장지와 고추장을 전달했다.

청하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소외계층 및 주민들을 위해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청하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지)는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화장지폴리도 2023년에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하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